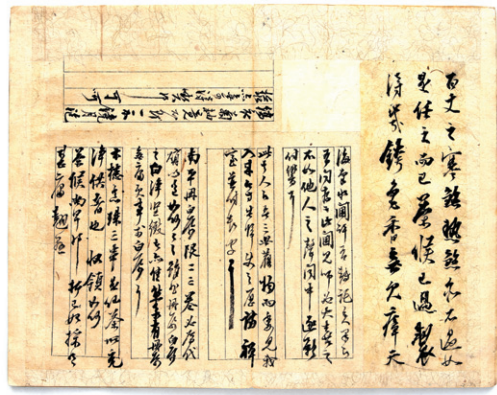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수군 절도사 신현을 초의에게 소개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의 이 편지는 해남 우수영으로 부임했던 신현(1810~1884)과 초의의 교류 시점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실제 〈완당전집〉(여초의)에도 수록된 이 편지는 이번 연재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셈이다. 특히 제주 적거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사는 자기, 초의를 위해 해남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신현을 소개한다. 이는 추사의 초의에 대한 배려와 함께 경화사족들이 초의와 교류하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 추사의 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처음 공개되는 초의와 신현의 교류시점을 밝히는 〈벽해타운첩〉

해남 수군절도사에게 (사람들 사이에 넣어서) 부탁해 두었습니다. 이제 곧 (그대의)안부를 물을 것인데, 이 수군절도사가 그대를 보면 크게 기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문을 풍문으로 듣는 것과 다를 것이요. 여기에서 보낸 사람은 바로 나와 삼대에 걸쳐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나에게 와서 있다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기에 그에게 스님이 계신 사실을 찾아 가라고 했으며, 아울러 몇 자를 적었으니. 남평에서 나는 백책지 한 두 세권을 꼭 사서 대신 보내주시어 아떨지요, 비록 책지에 글을 쓰지만 백지는 희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치밀한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좋은 책자가 없다면 계속해서 백지를 사용해야겠지요. 무한자나무로 만든 염주 3개는 (나에게)선처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내니 받아주시어 아떨지요. 차를 따는 시기가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차일지 몹시 기다려집니다. 호의의 국축(菊軸)은 아직도 퍼보지 못했고, 경월이 보낸 포장도 맛보지 못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海南

水園許有轉託矣 果即有問存而此圖見師 必大喜之 不如他人之聲聞中逐影訪響耳 此去人即吾三世舊物 而委見我入來 今方告歸 使之歷訪禪室 並付數字耳 南平册白紙 限二三卷 必爲代購以送 如何如何 雖書册紙 白紙之白淨堅緻者亦佳 然若有册紙無庸 更事於白紙耳 木德念珠三串 是仙茶所充淨供者也 收領如何 茶候尚早耶 抑已始採耶 甚庸翹懸 縞衣菊軸 竟不一即示 鏡月泡漿 亦無可得嗶耶 可呵)

이 편지를 보낸 당시 해남 수군절도사는 바로 신현이었다. 그가 해남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것은 1843년경이다. 그는 추사의 소개로 초의를 만난 후, 서로를 존중하는 예를 갖추었고, 소치를 자신의 막하(幕下)에 머물게 하는 등, 이들에게 아끼고 있는 후원을 보낸 인물이다.

그의 초명(初名)은 관호(觀浩), 자는 국빈(國賓)이요, 호는 위당(威堂), 금당(琴堂), 우석(于石)이

다. 어려서 다산에게 수학했으며, 추사에게 실학의 요체를 익혔다.

특히 남평에서 생산되는 책지를 보내달라는 그의 요구는 격의 없는 벗에게나 할 수 있는 것. 추사의 종이에 대한 안목 또한 "비록 책지에 글을 쓰지만 백지는 희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치밀한 것이 또한 좋습니다"라고 대목에서 드러난다.

당시 전라도 남평에서 우수한 종이 생산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그는 좋은 차를 보내준 초의에게 무한자나무로 만든 염주 3串(串)을 증표로 보냈다. 이 나무는 제주 방언으로 "도유낭", "더유낭"이라 부르며, 열매의 껍질은 비누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나무의 열매로 만든 염주를 초의에게 보낸 것이다. 실제 이 염주는 추사가 손수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늘 좋은 차를 보내주는 초의에게 자신의 정성을 담아 보낸 증표 이리라. 또 그가 "차를 따는 시기가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했습니까"라고 한 것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1843년 늦은 봄일 가능성을 드러낸 언급이다. 더구나 차를 갈구하는 그의 마음을 "뒤꿈치를 세우고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제주 시절, 차에 의존된 그의 일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추사는 초의이외에도 호의나 경월 등, 대문사 승려들과 폭 넓게 교류했는데, 이는 호의가 국축(菊軸)을 보낸 일이나 경월이 장류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세상과 멀리(別離)된 곳, 제주의 척박한 환경에서 추사를 건디게 한 힘은 간담없는 배려. 곧 사람과 사람이 이어준 따뜻한 정이었다.



박동준(중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도덕성 회복운동 전법과 다르지 않아”

고진광 대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시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자가 아닌 활동가들의 신념,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지난 30년간 시민사회운동 현장 활동가로 지내 온 고진광(67)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는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표는 1989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창단 멤버로 참여하며 시민사회 활동과 인연을 맺었다.

1981년 인추협 전신인 원광리너스(12월 이상 한철자들의 모임) 클럽을 결성한 고 대표는 인추협으로 명칭 변경 뒤 실천사업으로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 열매잇기운동 등을 펼쳤다.

“당시까지만 해도 매월이 성행했어. 현행하는 이들이 없어 피를 사고 판다는 생각에 현행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행운동으로는 최초였지요. 당시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현행운동을 펼칠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이 아직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현행운동을 넘어 시민운동으로 뛰어 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1989년 장안을 떠돌이처럼 했던 박한성 사건이다. 영화 ‘공공의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박한성 사건은 친부모를 살해해 불태운 패륜사건으로 종교·시민사회에 인간성 회복에 대한 움직임을 일게 했다.

“당시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 천주교에서는 내탓이요 운동이 전개됐어. 월주 스님 등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뜻이 있었습니. 구본홍 전MBC 사장 등 당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 우리 사회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때론 버는 등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 이런 도덕·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

이중 인추협은 아이들이 자라며 자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일기운동’을 전개한다. 전국 500만 학생들에게 일기장을 무료로 보급한 사랑의 일기운동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당시 김대중 정권 시절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일기를 나눠주었다. 북한, 중국, 베트남, 미국 등에 보냈다”며 “당시 대기업에서 거액의 광고제거가 들어왔었다. 그때 광고 제휴를 했다더라면 아마 빌딩 하나는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의 일기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을 염려해 당시 인추협은 광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경실련 등 오래된 여러 시민단체들은 후원금 등을 모아 사무실과 빌딩을 갖고 있어. 인추협은 정말 순수하게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신념 하나로 사무실 하나 없이 30년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인추협을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1990년대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가 합법화되며 ‘사랑의 일기’ 운동은 전교조의 학생인권 침해 제기로 잠시 중단된다. 학부모 회원 중심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이 조직됐고 전교조 합법화 반대운동까지 펼쳐지게 된다.

당시 학사모 대표를 맡은 고진광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前국무총리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전교조 해체 요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이후 큰 시련이 닥쳐왔다고 전했다. 검찰이 인추협과 산하 단체인 학사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로 인해 인추협은 사실상 문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인추협은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원 개개인이 신념 하나로

활동한 결과였다.

결국 ‘사랑의 일기’와 ‘학사모’도 명맥을 계속 이을 수 있었다. 학사모는 2004년 전교조의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란 명제 하에 민·형사 소송을 모두 승리했다.

고 대표는 이후 ‘재해극복범시민연합(재민연)’을 설립해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해외 재난구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고 대표는 4년 동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한봉협은 2003년 적십자 재단, 국내 이비스 등 봉사단체 138곳이 뜻을 모아 만든 협의회로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 등을 한다.

젊은이들 신명나게 불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그의 신념은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고 대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자로 자랐다.

1972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고 대표는 수도경비사령부 경호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 근무는 불자로서 그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

수경사 경호실 근무하며 불법홍포 청년불교운동·‘달마불청’ 창립

종교초월 ‘사랑의 일기 운동’ 전개 500만 학생에게 일기장 무료 보급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조직 전교조 해체 요구 발언, 시련 겪어

‘왕따 방지법’ 등 현 정부에 건의 청소년 국가관 심는데 남은 인생 매진

“당시 청와대에서 불교는 없었어. 수경사에는 군종이 있었지만 청와대에 오니 없었습니다. 사병이었지만 경호실 근무로 알게 모르게 발언권이 있었기에 청와대 승무원에서 범죄를 볼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수경사 병력 40명이 1972년 승무원에서 처음으로 범죄를 보았습니다. 40명이 나중에는 200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차츰 늘자 수경사에 법당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당시 수경사 병력이 성철 스님을 뵈 적이 있습니다. 3000배 하고 성철 스님 만나서 출가하고 싶다고 하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잘생겼으니 제가자로 포교도 하고 사회운동도 해라.”

고 대표는 제대 후 1979년 29세의 나이로 대불청 서울불청 활동을 한다.

고 대표는 “뜻은 컸지만 젊은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활동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다. 특히 스님들이 제자들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 것이 한계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창신동 관자촌 집수리 행사. 왼쪽부터 당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과 손인웅 목사, 고진광 대표



1997년 ‘사랑의 일기’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한 월주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사랑의 일기는 불교·기독교 교류의 가교가 됐다.



2012년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서 찍은 초등학생 농촌 봉사 활동에서 아이들과 배추를 나누는 고 대표(사진 왼쪽)



2013년 2월 6일 참전유공자들과 결연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설맞이 돼지고기나눔 행사 장면

Advertisement for 'WORLD BUDDHISM LEADER' featuring a 108-day retreat for 108 monks in Myanmar.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treat,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icipating monks. The text is in Korean and English.



고진광 대표는 ... 1956년 태어난 고 대표는 영국 맨체스터 대를 수료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민족공동체지도자 과정, 경희대 NG대학원 정책과학대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1년 원광리너스 클럽 회장 및 달마불교청년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88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무총장, 91년 KAL기 피격 진상조사단장, 92년 기초농산물지키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실종자 서울시 민간심의위원, 사랑의일기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장, 96년 한국인간자원구조단 초대단장 등을 지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1989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를 설립해 2004년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선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인추협 대표이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청년회도 선거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나와서 달마불교청년회를 만들고 활동했어요. 점차 불교계에서는 스님들 뒷받침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활동하면 밀어주는데 불교계는 그런 응집력이 없었어요.”

이 무렵 고 대표는 결혼을 하게 된다. 당시 청화 스님이 축사를 하고 미당 서정주 선생이 주례를 보았다. 시흥 심원사를 꾸준히 다닌 고 대표의 눈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부인과 결혼하며 점차 시민사회로 향한다.

“인간성 회복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특히 불교를 내세우기 보다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일기” 운동은 불교와 천주교가 소통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80년대에는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등 사랑의일기 운동을 함께 하며 서로 교류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활동 중에도 고 대표는 아직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부인이 현재 성모병원 대외협력팀장으로 있습니다. 천주교의 경우 결혼할 때 혼배상사를 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의 결혼에는 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한테 이 말을 했어요. ‘마누라는 바꿀 수 있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교는 바꿀 수 없다’ 고요.”

고 대표는 그로 인해 승진 등에 피해를 받은 부인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 대표 관음성배를 해라’고 권유하셨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이제는 종교 자체보다 그 본질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혼동의 사

회에 불심을 갖고 큰 바퀴를 굴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 인성 교육에 우리 사회 미래 있어

현재 고 대표는 6·25 참전 유공자와 청소년들을 맺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 대표는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데 6·25 참전 유공자들의 대다수가 86~87세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며 “18만 명이 현재 생존해 있는데 중학생들과 참전유사를 연결해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연 학생들은 참전 유공자 봉사활동과 함께 후원 모집 등을 전개한다. 4월 17일에는 510명의 학생들이 참전유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고 대표는 “요즘 중·고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자원봉사를 단순히 스펙쌓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며 “인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사회 기여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이 6만 2000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만 3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간성 회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고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에 △왕따 방지법 △청소년 교육을 위한 맹모효가 △특별학생재판부 구성 △체벌면책특권 △학교폭력예 은폐 위אות제 도입 등에 64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

고 대표는 “인추협이 초창기로부터 걸어온 지난 30년은 앞으로 걸어야 할 30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제는 정신운동으로서, 사회개혁운동으로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찾아 사회 구석구석 필요한 손길을 찾아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내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반성도 하고 있다”며 씩씩한 웃음을 지은 고 대표는 “현장 경험 밖에는 내세를 게 없는 나를 30년 넘게 믿고 따라준 이들도 또 다른 가족”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2년 대학생 연탄자원봉사사에서 연탄을 나른 후 학생들, 독거어르신과 함께 정을 나누었다.(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전법일기

사람은 가도 사진은 남는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오래전 한 카메라 회사에서 썼던 광고 카피다. 기억의 유한성과 기록의 무한성을 강조한 명언이다. 광고 카피는 때때로 명언으로 남는다.

나는 거의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긴다. 글로 남기는 건 날마다 꼼꼼하게 쓰는 일기와 사무장이 쓰는 일지가 대표적이다.

언제 누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되고 자원봉사 통장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지를 세심하게 쓰라고 사무장에게 말한다.

물론 보살행을 하는 봉사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기록하기 위해 봉사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주최자인 중무소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봉사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사진은 기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체다. 백 마디의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나은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절에서는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진으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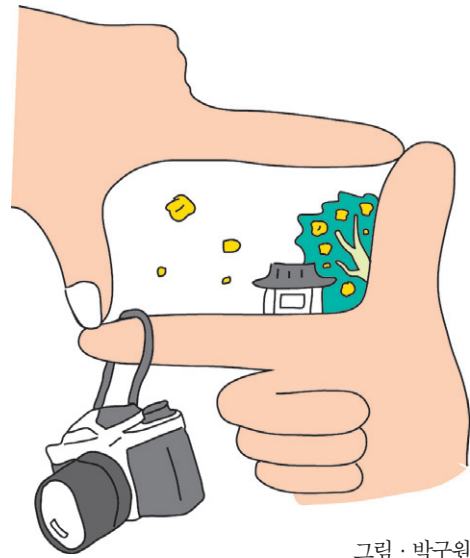
한 달에 세 번 어르신 공양 때는 신도들이 전달 풍나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이 공양 드시는 모습, 봉사자들이 밥을 짓거나 음식을 나르는 모습까지 다 기록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반찬을 갖다드리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는 모습도 사진 기록의 대상이다.

특별한 행사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웅전 삼존불 복장을 열던 날은 카메라 두 대의 셔터를 쉬지 않고 눌러댔다. 부처님오신날

사진 속의 우리절 신행



그림·박구원

관불(灌佛) 장면이나 봉축음악회 때 열장하는 가수들도 카메라를 거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온전히 살아 있다.

한 달에 한 번 불기 닦는 장면도 빠뜨리지 않는다. 매양 그 분이 그 분이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지라도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신도님이 어떤 자제로 임하는지 사진을 보면 다 나타난다. 사진을 통해 신도들의 보살행을 볼 수 있다.

법회라고 다르겠는가. 큰스님·작은스님 할 것 없이 법문하는 모습도 담고, 기도하는 신도들의 진지한 표정도 담는다.

전체의 모습을 잡기도 하고 신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담기도 한다.

공사를 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 큰 공사는 작은 공사로 카메라가 따라붙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지된 모습으로 잡는다.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기 배선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사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 절 사진은 주로 사무장이 찍는다. 노출이 맞지 않기도 하고 초점이 나간 사진도 많지만 아무튼 꾸준히 찍는다.

매주 일요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회를 하는 모습은 교사들이 촬영한다. 아이들이 합창하는 예쁜 모습도, 도자기를 만들거나 베드민턴을 치거나 공놀이하는 모습도 촬영한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우리절에서는 가끔 전시회를 한다. 도량이 좁고 전시할 공간이 마땅찮기 때문에 대웅전 바깥벽에 두꺼운 합판을 붙이고 사진 액자를 내건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법당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본다. 거기에는 우리절의 모든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액자 속에서 순간은 영원으로 빛난다.

사진은 액자와 하드디스크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진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 동행하여 신문에 얼굴을 내밀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의 모니터를 장식하기도 한다.

때로는 인쇄물에 자리 잡기도 하고 맑은 인화지에 새겨져 앨범 속으로 들어가 추억이 되기도 한다. 세월 따라 사람은 가도 이렇게 사진은 남는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이색 LED전구		전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주름 등		영정(가) LED전구
	칼럼모자 LED전구						영가 등
	공 단 등						구름 LED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 제품은 법당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흥은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